담양군, 폭염에 따른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국립축산과학원 · 전남농기원, 양돈농가 대상 진행

가축피해 예방 위해 미네랄 보충 급여 등 실시 안내

담양군은 지난 20일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처방안에 대한 현장기술지도를 진행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15.4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 폭염일수가 지난해보다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안개분무로 내부 온도 절감과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 사용,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지붕 물뿌리기를 통한 복사열 감소, 시원한 물과 비타민, 미네랄 보충 급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철 적정 환경유지 시스템과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생산성 저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 사양관리, 축사 관리 등 폭염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천혜향 재배 도전 나서

재배기술 이론 교육·현장 컨설팅

곡성군이 고품질 천혜향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천혜향 재배기술 이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곡성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마이스터를 초빙했다.

교육생들은 천혜향 품종 특성, 토양 시비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세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론 교육이 끝난 후에는 곡성군 내 천혜향 재배단지를 방문해 가지 유인 방법, 새순관리 요령 등 실습도 진행됐다.

곡성군은 2019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천혜향 재배단지를 0.7ha 조성했으며 올해 0.7.ha를 추가로 조성한다.

천혜향 주산지로는 제주도가 유명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남부지방에서도 재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3농가가 천혜향 재배에 도전하고 있으며 올해 3농가가 늘어 총 6농가가 천혜향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재배를 시작한 천혜향은 2024년 봄철에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참여한 농민 A씨는 "내륙지역에서는 천혜향 작목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재배가 쉽지 않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천혜향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화순군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

화순군은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아이스팩 사용량 급증과 버려지는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물에 녹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아 그대로 강과 바다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재활용 대상 아이스팩은 훼손되지 않은 젤타입 아이스팩이다.

아이스팩 배출 시에는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팩은 선별 작업을 거쳐 신선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수요처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이스팩이 필요한 수요처는 화순군 환경과(379-3604)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금천 미곡마을 담벼락에 수놓은 벽화 눈길

마을회관 주변 담벼락에 마을 옛 풍경 그려

나주시 금천면 주민들이 미곡마을 주택 담벼락을 정겨움이 묻어나는 옛 마을 풍경으로 가득 채웠다.

금천면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원곡3리 미곡촌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는 도민들의 소통과 공감의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범도민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 22명으로 구성된 미곡촌 으뜸마을 추진단은 마을회관 주변 낡고 빛바랜 주택 외벽과 담벼락의 벽면 손질에서부터 옛 지역 풍경을 담은 벽화 작업을 추진하며 한층 밝아진 마을 분위기를 조성했다.

벽화 작업과 함께 마을 유휴 공간에 자산홍 170여주를 식재하고 오래 방치돼있던 폐농자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도 펼쳤다.

김관율 금천면장은 "연이은 무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벽화 작업에 참여해주신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성료

수도권 도시민 대상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 제공

구례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수원메쎄에서 열린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했다.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는 시설면적 6㎡당 1명 입장, 매일 아침 주최자 · 참가기업 · 운영요원 전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 후 박람회에 입장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특히 맞춤형 지역정보 서비스 사업을 활용하여 구례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사전 문자로 박람회 참가일정을 알리는 등 코로나19로 지역 방문이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구례정착 보금자리 등 특화된 귀농귀촌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순호 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여 비대면 귀농 · 귀촌서비스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7월말 부산 벡스코, 10월 서울 등 앞으로 열릴 박람회에 참여하여 도시민 대상으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좌식테이블의 다리를 입식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장성군 환경위생과 위생팀(061-390-7314)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 시 좌식테이블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한결 편하게 음식점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